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프라 안젤리코, 「산상설교」(1440년), 프레스코 벽화.
성 마르코 박물관.

† 오늘의 전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태 5,1-12ㄴ 참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은 신앙인에게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의로움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영원한 천상행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1독서 묵시 7,2-4,9-14

제2독서 1요한 3,1-3

복음 마태 5,1-12ㄴ.

입당송 주님 안에서 다 함께 기뻐하세.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축제를 지내세. 천사들도 이 큰 축제를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화답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배꼽인사

이영재 대건안드레아 신부 | 덕수본당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자락에 자리를 잡으신 다음 ‘참된 행복’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가르치신다.

성당에서 어린이들을 만난다.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꼭~ 누르며, “신부님께 인사해야지”라고 한다. 아이는 누르면 누를수록 고개를 더 뺏뺏이 든다. 나는 양손을 배꼽에 가지런히 하고 “찬미예수님”하고 인사한다. 그때 아이도 양손을 배꼽에 대고 엉덩이를 뒤로 쪽~ 빼고 “안녕하세요”라고 응답한다. 하늘나라의 천사가 따로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배꼽인사를 가르치셨다는 생각이 든다. 머리를 눌러 인사를 강요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참 사랑의 모범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 교우여러분 모두 성인 성녀 되세요!!!

2016년
2016년

신앙다이아리

보다 세련되고 슬림한 사이즈의 2016년도 신앙다이아리가 출시됩니다.



판매가: 10,000원(선 주문 시 9,000원)

예약기간: 2015년 11월 2일(월)~11월 20일(금)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믿음의 길

창해, 해변을 거닐다

신중혁 마태오 | 동천본당

하느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여전히 벅차다. 성경 구절을 읽고 어렴풋이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경지까지는 너무 아득하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지상 강론 중에서, 머리에 가슴까지 가는데 일생을 헤맸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행동이 따라야 하는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사제의 담론을 거들 수 없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공부하고 봉사도 한 적이 있다. 창세기, 탈출기는 예닐곱 번을 지나쳤는데도 역시 망망대해다. 해변을 거닐면서 조개껍데기로 바닷물을 떠 낼 뿐 그 속은 알 길이 없다. 많은 부분을 해설서에 의존하나 해설 자체도 어렵고 지루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매일 미사의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복음에 다가갈 때가 있다. 생활 주변에서 자주 겪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우연이겠지' 하고 말하는 것은 교만에 속한다고 하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따지고 보면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아니 잠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하는 것이다. 어떤 자매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금방 버스가 오고 마침 자리가 나서 앉아 왔다고 은총을 들먹인다. 우연이라고 지나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잘게 쪼개어 신통함을 들먹이다 보면 쉽게 섭섭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기복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 금전 문제 등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큰 틀에서 가닥을 찾고, 막막했던 문제가 풀렸을 때는 정말 고마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하느님 말씀을 두고 분변을 못할 때가 많지만 어느 때는 신통하게 가슴에 와 닿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마태오 복음 20장은 늘 궁금하고, 예수님이니까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겠지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 불공평하시다는 느낌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지난 8월 19일 미사 참례를 하면서 찝박한 신부님 강론을 통하여 무릎을 칠 만큼 깨달음이 다가온 것이다.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 나간 발주인은 이른 아침에 데려온 일꾼이나 오후 늦게 만난 일꾼이나 똑같이 품삯을 쳐주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불평을 듣게 되는 것이다. 신부님 강론 요지는 예수님의 조치는 정의 쪽이 아니고 자비라고 알려 준다. 그렇다, 정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다. 넓은 의미로 정의는 하느님의 자비의 옷자락에 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의는 영원불변의 것이다. 사람이 세운 정의는 경쟁을 동반할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의를 앞세우다 소외 계층은 없었는지, 정의가 승리하면서 그 상대는 휘둘리지 않았는지 짚어봐야 한다. 하느님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하루 생활의 비용이다. 경제논리, 엘리트 의식, 일등 줄다리기 속에서 부대끼다 보면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행복을 뭉겔 때가 있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은 삶의 의욕쯤으로 생각하고 하느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기는 것이 포근한 위로가 아니겠는가. **필문**

사랑의 표현

이지운 시몬 신부 | 월성본당 부주임



옛날 어느 날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대요. 그런데 그만 ‘안 사랑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그럼 누가 남았게~~~요?

“사랑해.” 이런 유치한 퀴즈를 통해서라도 듣고 싶은 말이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쑥스럽고 어색하다는 이유로 이 ‘사랑한다’는 표현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아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배우 조재현씨 부녀가 나오는데, 처음 그 부녀의 모습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오늘날 가족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배우

생활로 인해 딸의 유년시절을 함께 해 주지 못했고, 또 표현에 서툴러 대화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딸 혜정 양도 그런 아버지를 낯설어하고 어색해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와의 소통을 원하며 항상 방문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송 초기에 조재현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딸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부녀의 관계는 확실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질수록 추억이 쌓였고, 마침내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혜정 양도 그 사랑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겨주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뒤를 따르는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 이해인 수녀 **필로**

흑인 둘, 백인 하나

1968년 10월 16일 멕시코 올림픽 남자 육상 200m 결승전, 시상대에 선 금메달리스트 토미 스미스와 동메달리스트 존 카를로스는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높게 치켜들고 목에는 검은 스카프를, 신발을 벗은 발엔 검정 양말을 신었습니다. 버스도 제대로 못타고 음식점에서도 쫓겨나던 미국 흑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올림픽에서 추방되었고 자국 육상연맹에서조차 제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은메달을 딴 호주 출신의 피터 노먼은 두 흑인의 뜻에 동참해 스미스, 카를로스와 함께 OPHR(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인간의 권리를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배지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섰습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호주에서 노먼은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상계에서 퇴출되었고 팔시와 조롱 속에서 우울증을 앓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산호세 주립대학에 두 흑인 선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백인선수의 동상은 없었습니다. 피터 노먼 선수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리는 비워 달라. 인권운동에 동참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피터노먼이 2006년 세상을 떠나자 두 흑인은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노먼의 관을 운구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장례식까지 이 흑백 메달리스트들은 동료였습니다. 탄압과 불이익을 감수했던 이들의 용기 덕분에 오늘날 올림픽에서는 인종차별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11월 1일	성녀 드보라(구약인물, 판관, 예언자, BC 12세기경), 성 마투리노(신부, 증거자, 상스, 4세기경) 성 베니노(신부, 순교자, 디종, 2세기경), 성 비고르(주교, 바이외, 537년)
11월 2일	성 빅토리노(주교, 수사학자, 순교자, 페타우, 304년경)
11월 3일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수사, 1579~1639년), 성 말라키아 오모르(주교, 아마, 1095~1148년) 성녀 베네프리다(수녀원장, 동정 순교자, 650년경), 성 아미코(은수자, 몬테카시노, 1045년) 성 후베르트(주교, 리에주, 650~727년)
11월 4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추기경, 밀라노, 1538~1584년), 성 니칸데르(주교, 순교자) 성 비탈리스(순교자, 304년), 성 아그리콜라(순교자, 304년) 성 에메리코(왕자, 헝가리, 1007~1031년), 성 피에리오(신부, 알렉산드리아 310년)
11월 5일	성녀 베르틸라(수녀원장, 셀레, 705년경), 성 즈카르야(신약인물, 예언자, 사제, 1세기경)
11월 6일	성 데메트리아(주교, 키프로스, 912년), 성 레오나르도(은수자, 수도원장, 노블락, 559년) 성 바를라암(수도원장, 쿠티, 1193년), 성 일투드(수도원장, 450~535년)
11월 7일	성 엔젤베르토(주교, 순교자, 쾰른, 1187~1225년), 성 플로렌시오(주교, 스트라스부르, 693년) 성 빌리브로르도(선교사, 주교, 에히티나흐, 658~739년), 성 헤르쿨라노(주교, 페루자, 547년경)



■ 가톨릭푸름터 개원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20일(화) 오전 11시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시설인 '엄마랑 아가사랑 가톨릭푸름터' 개원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성 유대철본당 봉헌식



대주교님께서는 10월 25일(일) 오후 3시 성 유대철본당에서(구. 문덕본당, 주임 : 김교산 알체리오 신부) 새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44주간, 2015. 11. 1~11. 7.>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루카6-7장	8-9장	10-11장	12-13장	14-17장	18-19장	20-22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루카 복음서』

- 예수님 사건은 팔레스타인지역 한쪽에서가 아니라 세계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다.(3,1참조)
- 갈릴래아 선교(3,1-9,50) : 예수님의 활동을 유대인들 지역으로만 한정한다. 왜냐하면 루카는 의도적으로 유대인 선교는 예수님께, 이방인 선교는 교회의 몫(사도행전)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 예루살렘 상경기(9,51-19,27) : 확고부동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 예루살렘 선교와 구원사업의 완성(19,28-24,51) : 갈릴래아에서 시작되어 유다를 거쳐 예루살렘에까지 이른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에 까지 이른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5일(목) 19:30 4대리구청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11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1월 7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푸르실리스파 월례미사	11월 2일(월) 19:30 푸르실로 교육관 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7일(토) 11:00 대안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4일(수) 11:3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11월 7일(토) 11:00 성모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4일(수) 19:00 용강성당	수능기원미사	11월 10일(화)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3대리구 성소후원회 일일 피정

일시: 11.9(월) 10:00~14:00, 월성성당
강사: 손상오(루가) 신부
신청비: 1인당 6천 원
신청: 3대리구청, 641-5678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1.6(금) 18:00~8(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제45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11.20(금)~22(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교육 | 모집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010)3817-5255
문의: www.footfather.com / 476-7774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교실, 어린이성악, 통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플룻, 바이올린,
성가반주법, 캘리그래피, POP, 민요,
성인생활영어회화, 초등영어회화·문법
통기타가요교실 / 문의: 476-6211

2016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11.2(월)~6(금) 9:00~16:30
대상: 2009.1.1~12.31 사이에 출생 아동
방법: 컴퓨터 추첨 /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2016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1.2(월)~13(금)
문의: 850-3583(일반대학원)
850-3505(교육대학원)
<http://www.cu.ac.kr>

2016 전기 대구가톨릭대 특수대학원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모집: 의료보건과학, 창조경제경영,
뷰티예술, 사회복지, 국제다문화, 신학,
음악, 상담, 몬테소리, 한국안광학,

사회적경제 / 문의: 660-5511~3(특수)

잔꽃송이 축제 초대

기간: 11.14(토) 17:00~15(일) 14: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대상: 중1~고2 여학생 200명
회비: 2만 원 (단체 환영)
신청: (010)2649-2045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1.6(금) 17:30~8(일)
4박 5일: 11.16(월)14:00~20(금)
8박 9일: 11.23(월)14:00~12.1(화)
문의: (031)946-2337~8

2016년 CPE 와 PCE 교육생 모집

내적치유와 영적돌봄에 관심이 있으신 분
기간: 봄, 여름, 가을 학기
교육비: 75만 원(주 8시간, 총 16주간)
신청: 659-3410 / (010)4143-5508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가톨릭상지대 2016 신입생 수시 모집

모집: 수시 2차, 11.3(화)~17(화)
문의: 입학홍보팀, (054)851-3021
<http://ipsi.csj.ac.kr>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 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 전문 병원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여성성형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 구 정 신 병 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구스다운/커버 **이불 / 침구류**
국내/국제특허 **성당방석 / 단체서운품**
CARITAS
HAN KWANG **한광**
안젤라 권순화
010-9357-9988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장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위령의 날 미사

- 11.2(월) 10:00 교구청 성직자 묘지
(집전 : 교구 사무처장 박석재 신부)
- 11.2(월) 11:00 군위 묘원
(집전 :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 11.2(월) 11:00 범물동 묘원
(집전 : 교구 사목국장 박영일 신부)

행사 | 모임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수능합격기원 9일 기도

기간: 11.2(월)~11(수)
문의: 다사성당, 587-7300

제6기 아카데미수강생 수료 전시회

일시: 11.11(수)~13(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주최: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2016년도 베드로관 자원자 모집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 /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113차 교구 청년국 대구 선택 주말

기간: 11.20(금)~22(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 남녀 신자, 예비자

마감: 11.13(금)
문의: 김태우, (010)4521-4491

대구ME주말-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336차 ME주말: 11.20(금) 19:00~22(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혼인생활에 사랑이 가득 넘쳐납니다.

11월 가나 강좌

일시: 11.8(일) 10:00~17:30(9:30 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 접수(무료 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641-5678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성명: 성수정(로사), 박명화(미카엘라)

이상운(엘리시오), 이미경

교구청 관리과 여직원(사무직) 채용

자격: 대졸, 30세 이하, 1명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
증명서, 교적사본 / 마감: 11.6(금)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30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11.9(월)~11(수), 660-5161
참조: <http://www.dgsunmok.or.kr>

논공 성요셉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인원: 0명
문의: 간호과장, (010)9391-264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6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6년도 대구주보 광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전서류접수: 11.9(월)~19(목),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1차 순번추첨: 11.23(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2차 순번추첨: 11.23(월) 13:00 (당일 서류 제출 업체 대상)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제출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사업주가 담당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리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위임신청제는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는 자리에 **사전서류접수 순**으로 배정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추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줄임/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토피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니타워 4F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광복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작고 행복한 결혼식
하우스 웨딩 전문
메종 보네르
서현희 (헬레나)
☎ 053)421-3447
<http://www.maison-bonheur.co.kr>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골동품·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송갤러리 김대운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로감정)
☎ 053)474-305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